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로마서 9장1-13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8)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기본 명제로부터 바울은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신실성에 대한 물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유대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타당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 특별한 선택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이듯이, 지금 바로 이 사신을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민족을 넘어지게 해야 하며 스스로 불신실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간결한 서언에서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그의 감사의 정을 단언한다. 바울은 출신상으로(육신으로) 유대 민족에 속한다. 그는 자기 골육인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단념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3 절). 그 다음에 그는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구원의 내용을 든다(4-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칭은 출 32:28-29 에 의하면 존경을 표하는 이름이다.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

6-13 절의 단락이 다루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느냐 하는 물음이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7-9 절),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10-13 절)를 보기로 들어서 바울은 지적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육신의 자녀; 8 절) 모두에게 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11-13 절이 강조하는 바는 이렇게 된 것은 해당자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13 절의 사랑했다—미워했다가 히브리어에서 의미하는 바는 창 29:31-33; 신 21:15-17 에서 처럼 '더 좋아했다—좋아하지 않았다'이다. 눅 14:26 및 마 10:37 참조).

은혜로운 선택

바울의 시선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교회로 향한다. 교회에는 하나님 이 그 긍휼 가운데서 부르신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다(24 절). 그것은 예언자의 말씀으로 근거를 짓는다. 25-26 절에서는(호세아 말씀의 본래적 의미에 맞서서)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영입하는 것을 다룬다. 27-29 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는 심판에 처해지는데 반하여 오직 일부분만 '거룩한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유대인 기독교자들의 모습에서 본다는 것을 다룬다. 9:11-13, 18:22-23 에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명백하게 이중 예정 사상, 즉 구원 예정과 심판 예정에 관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의 목표는 종말의 심판에 처할 자의 수를 영구불변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의 찬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우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며(고전 1:23-24; 고후 2:15-16 참조) 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어떤 요구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비추어 보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단지 하나의 차원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9:1-29 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다루고 곧 잇달아서 9:31-10:21 에서는 이스라엘의 책임과 죄과를 다룬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의의 법(31 절)은 의,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약속하는 율법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그것이 선포하는 의를 열성으로 추구했으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약속은 행위에 나타난 경건한 공적에 따라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거부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완성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기꺼이 수용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그 근거는 10:3 에서 말함) 그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마 21:42,44; 눅 2:34; 벰전 2:6-8 참조, *거치*는에 대해서는 고전 1:23 참조).